

경남 창원에 교사불자회가 창립된다. 전국교사불자연합회 경남지부(지부장 김형춘) 창원지회 창립준비위원회(이하 창립준비위)는 최근 창원 성주사에서 발기인 모임을 갖고, 오는 11월 9일 창립법회를 봉행하기로 했다.

창립준비위는 이날 모임에서 불자회 정관을 마련하는 한편, 성주사 주지 원정 스님을 초대지도법사로 위촉했다. 또 창립준비위원회장에 강영철(경일고), 총무에 이성근(영지여고), 재무에 최명숙(팔용중) 교사를 선출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창립준비위는 지난 7월부터 회원모집에 들어가 현재 25명의 회원을 확보했으며, 앞으로 창원시내 55곳 초·중

**교사 불자련 경남지부
창원지회 11월9일 창립**
200여명 대상 회원가입 유도

· 고등학교 불자교사 200여 명을 대상으로 신입회원 가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창원시내 미창립 사찰불교학생회의 창립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초에 50여 사찰을 돌며 주지스님과의 면담을 추진키로 했다.

창립준비위는 특히 창원시사연연합회와 공동으로 청소년상담실과 공부방을 마련, 지역 청소년 포교에 앞장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창원시 봉림천, 주남저수지 등을 중심으로 '불교학생회 자연생태환경보존운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창립준비위 강영철 위원장(49·법명취봉)은 "창원시내 불교학생회가 창립된 사람은 불과 2곳뿐"이라며 "앞으로 신입 불자교사 모집 활동과 함께 청소년 포교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일터불심이 문화 향기를 만끽하고 있다. 사진은 경북 청도군청 불자회가 지난해 10월 적전사에서 주최한 산사음악회 모습.

산사음악회 · 승진축하 · 차량안전기원 등

문화 · 이벤트법회 “얼썩~”

일터 불심이 문화 향기가 스며들고 각종 테마이벤트의 즐거움도 피어나고 있다.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노옥심)가 창립 3주년을 맞아 4일 충북 단양 구인사에서 산사음악회를 여는 한편, 대한민국경찰불교회(회장 김중겸)도 18일 서울 광화문 열린마당에서 경찰의 날 기념 '국민과 함께하는 경찰불교 한마당' 행사를 벌인다. 대전 대덕연구단지 내 불자회 연합회인 성불회는 대덕 태전사에서, 경북 청도군청 불자회는 청도 대흥사에서 이번 달 중순 산사음악회를 열 계획이다.

'이벤트' 성 법회도 꾸준히 열리고 있다. 승진축하, 생일, 차량안전 기원, 전불가 배우기 등 테마가 있는 법회가 직장 특성에 따라 다채롭게 진행돼 직장불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경찰청 불교회는 대한불가사수회 고문 남강수 씨를 초청해 전불가 법회를, 서울도시철도공사와 서울지하철공사 법우회는 철도청 불교단체협의회와 함께 환경을 테마로 견기대회 행사를 열고 있다. 또 국회정각회 직원불교신도회는 승진 축하법회를 갖고 있다.

문화 개념의 법회가 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신행활동의 다양화'에 있다. 딱딱하고 무거운 분위기의 기존 법회형식이 가진 일터불심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직장불자회 회원 감소와 노령화 현상을 부채질하는 등 직장불자회 활성화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 그간의 일방적인 법문 전달 위주 법회가 불자들의 흥미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문화 법회의 가장 큰 특징은 프로그램이 알차게 구성됐다는 점. 합창단, 불자 가수 공연은 기본이고 영산재 시연, 색소폰·국악·사물놀이 공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대전 대덕연구단지 성불회의 경우, 대전시립 연정국악원을 지난해에 이어 다시 초청해 법배, 바라춤 등의 불교음악을 선보이게 할 계획이다.

경북 청도군청 불자회 박동규 총무는 "산사음악회 같은 법회는 회원들이 직접 기획·홍보·섭의 등을 맡아 진행해, 자연스럽게 회원 간 화합을 다지는 기회가 된다"며 "회원은 물론 지역 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중요한 자리라 마련돼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신행활동 다양화 · 회원확대 긍정 효과

회원들이 직접 기획 · 홍보... 화합도 다져

우리 모임에선

해명복지관서 무료진료
경희의료원 불자회(회장 권혁운·사진)는 3일 경북 구미 해명사회복지관으로 무료 진료 봉사활동을 떠난다. 011-317-5727

무비 스님 초청 정기법회
서초반야회(회장 김동건·사진)는 15일 서울 우면동 대성사에서 조계종 교육원장 무비스님 초청, 정기법회를 봉행한다.

'제2회 불자가수 가요제' 개최
대한가수불자회(회장 김합선·사진)는 14일 서울 마포 불교방송국 2층 법당에서 제2회 대한가수불자회 가요제 예선을 실시한다.

추계 의료봉사 · 수련대회
전국병원불자연합회(회장 김주호·사진)는 11-12일 이틀간 합천 해인사에서 제7차 추계 의료봉사 및 수련대회를 갖는다.

대전 교사불자련, 정기법회
전국교사불자연합회 대전지부(회장 여성규·사진)는 9월 26일 보문고등학교 천불전에서 보문중학교 김홍섭 교법사에 게 법문을 들었다.

청원 해남사로 성지순례
광주불교산악회(회장 오길수·사진)는 12일 충북 청원 해남사 및 청남대로 10월 정기 성지순례 및 산행을 떠난다. 011-603-8866

우리불자회는요

대우종합기계 · 한국항공우주산업 불교법우회

우리 불교법우회는 경남 지역 대우종합기계와 한국항공우주산업에 근무하는 불자들의 모임입니다. 원래는 (구)대우그룹의 한 유타리에서 있던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5년 전, 대우그룹이 해체되면서 항공사업본부가 분할됐고, 법우회 식구들도 나눠질 위기가 있었습니다. 회사는 비록 분리됐지만, 회원들의 법우회 사랑만큼은 그대로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대우종합기계(주)·한국우주항공산업(주) 불교법우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신행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창립은 84년 9월 23일에 했습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불교법우회의 자랑은 또 있습니다. 회원들의 믿음을 사회적으로 실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년 전부터 안정순 전 불교법우회장의 원력으로 펼쳐온 불우한 사원 돕기 운동이 바로 그것입니다. 안전사고나 교통사고로 운명을 달리한 사우 자녀 5명에게 생활비를 주는 이 운동은 지금은 대상을 10명으로 늘려 불교법우회 내 소모임인 봉사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걸어온 길은 평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역경도 겪었습니다. 핵심조직인원이

**분사로 해체위기 때 불심으로 결속 다져
불우사우돕기... 10명에 생활비 등 지원**



◇대우종합기계 · 한국항공우주산업 불교법우회 회원들이 17일 창립 17주년 기념법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다. 그러니까 올해로 17살이 된 셈입니다. 조금만 있으면 스물 살 청년이 됩니다. 그간 법우회원들은 빠르게 변하는 회사 사정에도 불구하고 단결된 모습으로 법회와 모임을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18명이던 초창기 회원이 80여 명으로 늘어난 것도 매주 법회를 여는 등 빠짐없이 신행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는 회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 불교법우회의 가장 큰 특징은 정기법회는 물론 성지순례, 체육대회 등 모든 행사를 월별 단위로 계획을 세워놓고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매주 화요일에 자체법회, 체육행사, 초청법회, 사찰순례 등을 일정별로 아무지계 신행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해 회원들의 한꺼번에 개인적인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었을 때, 2개 회사로 분사되었을 때 등 모든 자재가 해체될 위기에 놓인 적도 있습니다. 회원들이 나이를 먹어 가는데도 신입회원은 거의 없고, 법회 참석률도 떨어지지 않아서 저하된 때도 있었습니다. 그 때마다 회원들이 강한 응집력과 불심으로 더욱 결속을 다질 수 있었던 것은 부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올 하반기에는 회원들의 믿음을 돈독히 하는데 초점을 맞춰 계획입니다. 그래서 불교법우회 지도법사인 부산 성주사 주지 원정 스님, 창원불교대학 강사 옥련암 주지 원광 스님에게 받는 신행상담 시간을 늘릴 생각입니다.

■서열영 총무

법정스님의

무소유

3판 60쇄 본 1만 부의 판매금 전액을 '범우출판장학금'으로 출연(出捐)합니다!
▶ 범우문고 1판 1,2,3쇄 본(정가 280원)을 보내 주시면 양장본(값 6,000원)과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4×6변형 양장본 | 값 6,000원

<p>산사에 심은 뜻은 이청담 지음</p> <p>참회와 참선으로 가득찬 현묘한 법문으로 너무나 인간적인 영혼의 소리!</p> <p>인생은 태어나서 유체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잠시와 나그네길이다. 육신의 길은 일회적(一回的)이다. 이러한 사상의 핵이 담긴 스님의 마음표현은 독자들에게 삶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하며 감동이던 정신의 경지를 마련해 준다.</p> <p>●문고판 값 2,000원</p>	<p>불조직지 심체요절 佛祖直指心體要節 백운선사 박문열 옮김</p> <p>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p> <p>선도(禪道)들이 선도(禪道)와 선관(禪觀)의 안목은 물론 선종(禪宗)을 전통(傳統)하여 법맥을 계승해 하기 위한 책! 이 책은 우리나라의 학승(學僧)들이 대교과(大敎科)를 마치고 수외과(叢書)에서 공부하는데 사용되는 대표적인 학습서다.</p> <p>●신국판 값 9,000원</p>	<p>법화경 이야기 法華經 박해경 지음</p> <p>반야(般若)의 공(空)을 활성화 시킨 반야의 공(說法實相)</p> <p>법화경이 천하 제인의 가르침으로 평가되는 까닭은,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 밝힌 경전이기 때문이다. 법화심부경 삼십이품의 인경에 주력하며 각종의 요점과 꼭 알아 두어야 할 대목들을 현대적 감각에 알맞도록 해설한 국립중앙도서관 추천도서이다.</p> <p>●신국판 값 7,000원</p>	<p>백운화상 어록 白雲和尚 語錄 석찬선사 박문열 옮김</p> <p>스승 백운화상을 향한 제자 석찬선사(傳探禪師)의 애절한 절규!</p> <p>암울한 고려 말기의 어둠을 밝히는 외로운 등불과도 같고 더위를 식혀 주는 신선한 바람과도 같은 독보적인 선종(禪宗) 중에 후세의 선도(禪道)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송(宋), 찬(禪), 명(明), 시(詩), 계(偈) 등을 집록한 정경서다.</p> <p>●신국판 값 10,000원</p>	<p>수타 니파타 Sutta-nipata 김운화 옮김</p> <p>불경 중에서도 가장 초기에 이루어진 경전으로 시와 글귀로 이루어진 구수문학의 백미!</p> <p>'수타'는 경(經) '니파타'는 집성함을 의미한다. 부처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의해서 운문형식으로 구성된 오다가 팔리어로 정착해 경전의 모습을 갖추고 '수타니파타'가 태어났다. 부처님의 첫 말씀으로 육성에 가까운 생생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책이다.</p> <p>●신국판 값 6,000원</p>
---	--	--	---	--